

하느님에게서 받은 용기



워싱턴 시내, 조지타운으로 오르는 길, 나를 마중하는 나무들과 새들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언덕 끝에 이르면 아름다운 하느님의 집으로 부르는, 하늘에 닿아 있는 성당을 만날 수 있다.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내 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였다. 그곳에 들어가 앉으면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따뜻한 햇살이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높은 공간에서부터 내 마음에 날아와 대리석 조각 바닥에 색깔들이 놀이를 시작한다. 참 아름다운 빛이다. 포근한 품에 안기는 느낌이 누구의 손길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때는 알 겨를이 없었다. 은총이란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말이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대학원 논문주제로 선택한 워싱턴 대성당의 그림 연작에 그곳의 시간을 표현과 지각으로 옮기느라 바빴었다. 그래도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나를 돌보아주신다는 믿음에 매달렸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의 나의 지도교수인 아더 홀 스미스(Prof. Arthur H. Smith)는 또 하나의 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한국 학생으로 유화를 그리는 것을 신기해할 정도로 깊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유머와 세심함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배려해주며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으로 예술과 삶을 가르쳐 주셨던 분, 그분은 진정으로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셨다. 지금도 내 기억 중에 신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사한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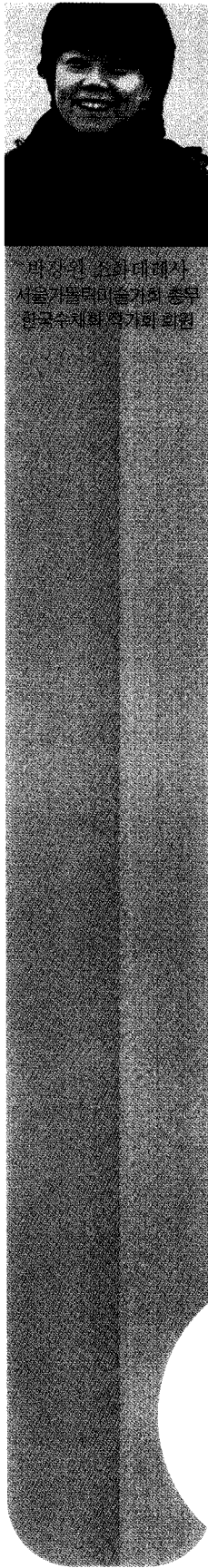
1978년 초봄, 서울에서 미국을 향해 비행기를 탔다. 이민을 가는 것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이 순리인양 알고 지냈던 시절, 공부를 중단하고 뚜렷한 목표 없이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었다. 대학 합격 발표가 있던 날, 당신의 오십여 년의 인생을 분홍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서, 직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리고 이민을 결정한 아버지, 우리 형제들과 엄마는 그저 따라나섰다.

미국과 나의 첫 만남은 나무, 새, 그리고 하늘로 기억한다. 엄마는 미국은 하늘도 참 크다고 하셨다. 그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시작된 새 땅에서의 새 삶은 고통스럽고 험겨웠

으며 온 가족을 뒤흔들어 놓았다. 스물한 살이 되던 생일, 하루 종일 서서 달과 화성 그리고 목성 등 우주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하며 우주 항공에 관한 홍보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일이었다. 일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고 한 시간 넘게 걸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저녁노을을 숲 사이를 따라 멈춰서 바라보았다. 피곤하고 긴장했던 내 눈은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게 생활한 내게 겸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외딴 울타리 안에서 나 홀로였던 삶이 과거로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계와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이라 했던가. 그 겸허한 마음이 자신을 돌볼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함께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하느님, 아빠 그 아버지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는 말씀이 있지만 화가의 꿈을 갖고 살던 내게 일은 고생스러운 것으로만 생각되었고 예술과 학문에 쏟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여유란 찾아볼 수 없었다. 성 베네딕토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노동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삶이란 오직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애씀으로써 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회적인 의미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내게는 여러 가지가 매우 버거웠다. 자신의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일 년을 일하다 다시 다니는 학교, 일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림도, 문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마치 문맹이나 외계인이 산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온통 먹먹한 침묵으로



박정원 소아과 의사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총무
한국수치화장사협회 회장

싸여 있는 공간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라는 하느님, 가족, 고향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흔들리는 가족 관계, 애달픔, 고향을 떠난 외로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새벽부터 다음 새벽까지의 일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낯섦, 그 마음으로 겪었던 자신과의 싸움은 그동안 내 안에 갇혀 스스로 문을 닫고 나를 열어보이지도 못하고, 다른 이를 내 안에 들여놓을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했고, 그 시간 속으로 되돌아 자아를 보게 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고향,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 파란 하늘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떠오르는 밝은 해를 맞이할 때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서러움에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눈물이 주룩 흐르며 어느 시인의 ‘고독’의 첫 구절이 떠오른다.

까마귀들 소리쳐 울고
날갯짓 퍼덕이며 도시로 날아간다.
곧 눈이 내릴 것이다.
평온하리니, 아직도 고향이 있는 이들은!

내가 선택한 곳으로 새로운 집을 찾아갈 때 나 자신과 화해를 하고,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 놓지 않아도 가족과 친구들과도 화해할 수 있게 소망했다. 그리고 인생의 뿌리 깊은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미국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었고, 하느님에게서 인생을 직면해 나가는 용기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나의 용기와 희망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기 를 기도한다.